여수시, 석유·화학 기반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시동

고순도 화학소재 산업으로 영역 확대
여수산단 '소재 공급망' 역량도 강화
산·학·연 협의체 사업화 방안 구체화
서영학 시장 "기술개발 투자여건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석유화학·정밀화학 기반을 활용해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소재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에 대응해 여수산단의 소재 공급 역량을 알리고 기업별 기술 개발과 투자 수요를 파악해 산·학·연 협력·신규 투자유치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 생산설비와 축적된 정제·공정 기술을 활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소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웨이퍼 세정과 식각 등에 사용되는 고순도 화학약품, 특수가스, 정밀화학 소재 등이 필요하다. 이들 제품은 미량의 불순물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밀 정제 기술과 안정적인 품질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여수산단은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생산시설과 다양한 정밀화학 공정, 기업 간 배관망, 숙련된 공정 운영 인력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강점을 활용해 광주 등 반도체 생산거점에 필요한 화학소재 공급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설비를 반도체 소재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순도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설비 개선 가능성을 살피고 시험·분석, 전문인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수요를 단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실제 여수산단 기업들은 반도체용 화학소재를 공급하거나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 세정용 이소프로필알코올(IPA)과 고순도 암모니아수, 질산, 황산, 산업용 가스, 포토 공정의 PGMEA, 패키징 공정의 에폭시, 하우징 소재 등이다.

시는 기업별 실제 공급 제품과 사업화 단계, 기술 개발 수요를 구분해 고순도 세정·식각 소재, 특수가스 등 유망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생산·공급 중인 제품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신규 진출을 검토하는 분야는 연구개발과 실증, 수요 기업 협력 가능성을 살필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30일 여수산단 반도체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전남광주시, 전남테크노파크, LG화학, TKG휴켐스, 한국바스프, 재원산업, 에어리퀴드코리아, 남해화학, 한화솔루션, GS칼텍스 등 관계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여수산단 기업이 반도체 소재산업으로 전환하거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 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기술·인력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분야에서 축적된 생산·정제 기술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용 고순도 소재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며 "관련 기업 수요를 토대로 기술 개발과 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소재 공급망에 여수산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초소형 위성 '순천샛' 내년 누리호 탑재 본궤도

市 자체개발…학술대회 예비설계 완료
내년 상세설계 거쳐 6호기로 사출 목표
손훈모 시장 "완성도↑ 성공 발사 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 '순천샛(SAT)'의 예비설계 검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내년 하반기 발사를 향한 본궤도에 올랐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한국우주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순천샛의 예비설계검토(PDR)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회의에는 순천시와 전남테크노파크 등 사업 관계자와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순천샛의 설계와 개발을 총괄하는 박설현 조선대학교 교수가 위성 예비설계 결과와 현황을 발표하며 설계의 기술적 적정성과 보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예비설계검토는 위성의 기본 설계가 부여된 임무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핵심 개발 절차다. 참석자들은 위성 시스템 구성을 비롯해 탑재체 설계, 전력·자세 제어 등 주요 기술 분야를 종합 점검하고 상세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필수 기술 사항들을 확인했다.

순천시는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 상세설계검토(CDR) 회의를 거쳐 위성 제작·조립, 환경시험, 성능 검증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하반기 누리호 6호기에 순천샛을 탑재해 우주로 쏘아 올린다는 구상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예비설계검토는 순천샛이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라며 "전문가들의 기술적 조언을 충실히 반영해 위성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내년 하반기 성공적인 발사와 안정적인 운용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백상현 기자

고흥군, 올해 친환경자동차 215대 보급

31억5천만원 지원…전기이륜차 추가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3일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와 수소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 실적은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123대, 전기화물차 71대, 전기버스 6대, 전기이륜차 14대, 수소차 1대 등 총 215대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31억5천만원이다. 이 중 전기이륜차를 제외한 차종은 보조금 지원이 마감됐으며 전기이륜차는 잔여 예산 범위 내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친환경자동차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승용차 뿐만 아니라, 생업과 밀접한 전기화물차와 대중교통 분야 전기버스, 생활 이동수단인 전기이륜차까지 다양한 차종 지원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기반을 넓히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맞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 등 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담양군상인회가 중앙로 일원에서 '읍내마켓 10월의 마지막 밤'을 개최한 가운데 박종원 담양군수가 핼로윈 분장을 한 방문객, 상인들과 함께 행사를 즐기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읍내마켓 10월의 마지막 밤' 성황

중앙상인회 기획 준비·현장운영 참여
가족 단위 방문·관광객 발길 이어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3일 "최근 이틀간 열린 '읍내마켓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가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담양중앙상인회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직접 기획했으며 상인들이 행사 준비부터 현장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상인들은 핼러윈을 주제로 중앙로 곳곳을 손수 만든 소품과 장식물로 꾸며 평소와는 다른 가을밤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 기간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한 가족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방문객들은 중앙로 일대 볼거리·먹거리를 즐기며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또한 중앙로 일원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방문객에게 담양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해 지역 상점 이용을 장려했다.

김성영 담양중앙상인회장은 "상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껏 준비한 행사에 많은 분이 찾아줘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상인들이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중앙로가 가족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광주권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화순공공도서관 입구 양방향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최근 시행된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 화순읍 교리 224-5번지 일원에 환승장 겸 무더위·한파 쉼터를 조성했다.

쉼터는 지난달 30일 완공됐으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간 환승 수요가 많은 화순공공도서관 입구 양방향 정류장에 설치됐다.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대기하는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환승하고, 대기 시간에도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환승 거점 기능과 휴식 공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새로운 건물을 별도 건립하는 대신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쉼터 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별도 시설 조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군민 편의를 높이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쉼터에는 냉·난방시설을 갖춰 여름철에 폭염을 피하고 겨울철엔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어르신 등 기상재난 취약계층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는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쉼터가 대중교통 환승 편의와 군민 안전을 함께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흥군민과의 대화' 시작…소통행정 본격화

10개 읍·면 순회 건의사항 군정 반영
사순문 군수 "군민과 지역 미래 설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군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희망찬 변화를 만들기 위해 민선 9기 군민과의 대화로 소통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장흥군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0개 읍·면 순회 일정으로 진행한다. 〈사진〉

군민과의 대화는 정형화된 행사 형식에서 벗어나 주민 누구나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격식을 최소화했다.

지역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에서 지역 발전의 해답을 찾고 이를 군정의 비전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군민과의 대화 현장에서는 마을 단위 생활 불편, 숙원 사업부터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자원 활용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 중장기 발전 전략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주요 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 여건을 확인하는 등 지역 현실에 기반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의 미래는 군수 혼자가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역의 희망과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구례장애인복지관·축협, 돈육 소비 촉진 행사



구례군장애인복지관과 구례축산업협동조합은 3일 "최근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식당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돈육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구례축산업협동조합에서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해 이용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진영 구례장애인복지관장은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용 장애인들에 영양 만점인 국산 돼지고기로 건강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정범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돼지고기 공급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례=김세중 기자